



# 발산하라! 청춘아

수완고 음악대장 '수완지구 음악대장'이라는 별칭으로 무대에 오른 수완고 신성민군이 열창하고 있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

'제5회 청소년축제'가 열린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설무대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뽐내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학업의 스트레스를 떨쳐내며 자신들의 재능을 맘껏 펼친 청소년들을 화보로 담았다.



동신고 춤꾼 동신고 댄스 동아리 헤르메스 팀은 무대를 꽉 채운 힘있는 공연을 선보이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열치열 무더위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 3대 3 길거리 농구 결승전에 나선 청소년들은 치열한 볼 생탈전을 펼쳤다.



양중맞은 '조이 드림걸' '조이 드림걸'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12명의 여고생 댄스 동아리팀은 양중맞은 안무를 선보여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Area 51' 칼군무 남여 고교생 혼성 댄스팀 'Area 51'은 흰색 모자·티셔츠·바지·운동화로 맞춰입고 무대에 올라 절도 있는 '칼군무'와 팝핀댄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트레스 날아가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공연·예술 부문에 참가한 또래들의 노래·댄스 공연을 즐기며 환호하는 청소년들.